

화순군,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교육...농가 호응

강소농 29명 참여...이달 농장별 차별화 전략 수립 등 예정 “향후 마케팅·브랜드 창출 등 적극 지원해 경쟁력 높일 것”

화순군의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교육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경영개선 마인드와 지속가능한 자립 역량을 키우고 경영혁신을 실천하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 교육이다.

군은 지난 2월 말 비대면 온라인 기본교육을, 3월부터는 온라인과 대면교육을 병행한 심화교육을 진행해 왔다. 교육에는 강소농 29명이 참여하고 있다.

강소농의 실천 목표인 비·품·고·가·역(비용절감, 품질향상, 고객확대, 가치향상, 역량강

화)실천, 농가소득 10% 증대를 위한 농가별 목표 설정, 관계형성의 가치 중심 경영기획을 중점 교육했다.

농장자원·경영현황 분석, 경영계획서 작성 실습 등이 교육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월부터는 농장별 차별화 전략 수립,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마케팅 전략, 품목별 기술 교육 등 전문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화순군은 농가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전문가 컨설팅,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강소농 자율모임체 활동, 소득증대를 위한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강소농 지원 시책을 추진



화순군 관계자는 “강소농 교육이 우리 군 강소농 역량 강화와 성공 모델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있다. “향후 마케팅, 브랜드 창출 등을 적극 지원해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구례군,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구례군은 올해 3월 말부터 9월까지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주소가 공법 관계 주소로 전면 시행되면서 그동안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도로와 건축물 등에 부여된 위치 등을 표기한 도로명판 등 5종류의 시설물이다.

조사대상은 관내 394개 도로구간에 설치된 차량·보행자용 도로명판 2,038개, 건축물 등에 부착된 건물번호판 13,221개, 도로에서 교통사고 등 유기에 처한 주민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 등 주요 건물에 있는 곳에 설치된 346개의 기초번호판, 그리고 지역안내판 12개로 총 15,617개의 시설물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모바일 현장조사 시스템인 스마트KAIS(국가주소정보시스템)를 이용해 실시하며 단말기로 시설물의 훼손여부 및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손·망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을 확충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인프라 확대와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설물을 적기에 유지·관리하고 훼손 망실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해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담양군, 미디어아트 전시관 ‘딜라이트 담빛관’ 유치 국내 최대 규모 실감형 미디어아트 뮤지엄...올해 8월 개장 예정

담양군이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미디어아트 전시관인 ‘딜라이트 담빛관’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담양군은 지난 29일 죽향산업주식회사(회장 한정수)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전시관 건립을 위한 세부 사항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자해 담양군 월산면

에 건립할 예정인 ‘딜라이트 담빛관’은, 21,000㎡ 부지에 4,600㎡ 규모의 미디어아트 전시관과 카페, 산책로 등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또한 전시관 외부에 다양한 조형물과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해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인 죽향산업(주)는 “담양에 건립되는

딜라이트 담빛관은 반복되는 단순한 효과와 미디어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천년 담양의 생태와 인문학을 재해석한 이야기를 접목해 관람객이 천년 역사가 담긴 담양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전했다.

최형식 군수는 “기존 박물관의 흥미를 불러낼 수 있는 ‘미디어아트 뮤지엄’이라는 새로운 관광시설을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나주시, 주민 고충 상담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나주시는 내달 6일 주민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소속 분야별 전문조사관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 고충,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당사자 중재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행정·공공기관, 지자체 처분과 관련된 고충이나 불만, 제도권 밖 복지사각지대, 법률, 소비자피해구제, 토지 분쟁, 노동관계 등 모든 생활 분야에 대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주시 첫 신문고 운영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4월 6일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현장 접수도 가능하지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권한다. 기동취재본부

나주 금남동, 금성산 벚꽃길 손님맞이 분주 통장단·주민자치위원회 등 4개 단체 새봄맞이 환경정비 구슬땀



나주시 금남동 주민들이 벚꽃 명소인 금성산 상춘객 맞이에 분주한 손길을 보였다.

금남동은 최근 통장단(단장 허현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발전협의회(회장 김준정), 새마을지도자회(회장 이관범) 등 지역단체와 ‘금성산 새봄맞이 환경정비’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체 회원들은 쾌적한 봄철 관광지 조성을 위해 한수제 벚꽃 길에서 금성산 등산로 일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허현숙 통장단장은 “쾌적한 벚꽃길 조성은 물론 이번 환경정비를 계기로 단체 간 지속적인 봉사 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며 “단체 협력을 통해 금성산 등산로 단장을 위한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동진 금남동장은 “나주의 진산인 금성산과 봄철 관광명소인 한수제 벚꽃길이 주민들의 손길 덕분에 깨끗이 단장됐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맑은 공기와 쾌적한 산책로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농업 기계 안전 사고 예방 이것만은 꼭”

곡성군이 농업인의 왕래가 많은 전통시장 일원에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업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 중이나 도로주행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23일 곡성읍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24일 옥곡면 전통시장, 25일 석곡면 전통시장 일원에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에 나선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와 읍사무소 직원들은 절대 음주 상태로 농업 기계를 다루지 않을 것을 강조하며 안전수칙 준수 등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트랙터, 경운기 등 동력 엔진 사용요령, 보관 요령, 안전사고 예방법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농업 기계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 홍보물을 배포하며 캠페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한 도로주행 중 추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 기계에 야광 스티커나 저속 차량 표시등(경광등)을 반드시 설치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블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